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3

인천광역시



# 인천, 대한민국의 베이스가 되다

백두산 2천744m, 한라산 1천950m, 그리고 서울 남산 265m,  
모두 ‘해발(海拔)’ 높다. 해발은 말 그대로 바다로부터의 높이다.  
대한민국 해발은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삼는다.  
인천 앞바다가 있기 때문에 백두산 2천744m도 있는 것이다.  
백두산이 높다하되 인천 바다 아래 피아로다.



남산  
265m

한라산  
1,950m

백두산  
2,744m

남구 용원동 인화공업전문대 캠퍼스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준원점



## 슬픈 인상화

정지용 \_ 1926



수박냄새 품어 오는  
첫여름의 저녁 때...

먼 해안 쪽  
길 옆 나무에 늘어 선  
전등. 전등.  
헤엄쳐 나온 듯이 깜박어리고 빛나노나.

침울하게 울려 오는  
축항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이국정조로 퍼덕이는  
세관의 깃발. 깃발.

세멘트 깐 인도측으로 사뭇 사뭇 옮기는  
하이한 양장의 점경!

그는 흘러가는 실심(失心)한 풍경이어나...  
부질없이 오랑주 껍질 씹는 시름...

아아, 애시리(愛施利)·황(黃)!  
그대는 상해로 가는구료...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 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화보Ⅰ   봄	06
화보Ⅱ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08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전자책에서 전자책까지	10
인천의 섬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대청도 해안사구	16
니하오 유커   인천 관광 포인트	20
인천의 오래된 이웃   화교	26
까치발로 본 인천   ③ 신흥동 사거리 → 울목도서관 아래	30
내 일 내 길   가경요양원 객정숙 원장	34
CULTURE INFO	36
탐방   기업현장 생생투어	40
NEWS BRIEF	41
협동조합 소개   동그라미협동조합	45
COUNCIL NEWS	4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50
INFO BOX	52
인천 사는 이야기	56
이 달의 책	57
모닝 커피 한잔   이성재 수필가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3월 5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성·정정호·김상덕·유창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 CONTENTS 2015. 03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5



07



14



28



### COVER STORY

책은 늘 사람과 함께해 왔습니다. 달고 달은 지문의 때가 스민 종이책도, 차가운 기계 속에 따스한 감성을 품은 전자책도,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해야 하는 점자책도. 2015년, 인천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입니다. 책이 함께하는 한 마음은 풍요롭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굿모닝인천'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TO. 굿모닝인천



#### 새롭게 바뀐 '굿모닝인천', 아주 좋네요

이달도 어김없이 찾아온 즐거운 인천 소식, '굿모닝인천'을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표지  
부터 새롭게 싹 바뀌었네요. 표지를 비롯해 사진들도 멋지고, 디자인도 좋아 읽기도 한결 편안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굿모닝인천 그리고 인천시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김서영 부평구 원적로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져서 너무 안타  
깝습니다. 어린이집 공립화가 추진되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  
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동학대 문제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박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 '몽(夢)땅 인천' 아, 정겨워라

인천 골목의 사진과 글이 정겨워서 '굿모닝인천'의 '몽(夢)땅  
인천' 기사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는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교감하고 기쁨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빈 대전시 동구

### @120incheon



####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고향 인천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 인천에서 나고 자란 류현진 선수는 인천의 고액 기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류  
현수는 고향 인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야구장을 조성하고 어린이 야구단을 후원하  
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인천인이라는 사실이 자랑  
스럽습니다.

#### 120 미추홀콜센터에서 외국어 통역도 해주나요?

↳ 반갑습니다. 시민님. 120 미추홀콜센터에서는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외국어 상담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65일(09:00~18:00), 몽골어와 베트남어는 월요일부  
터 금요일(09:00~18:00)까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14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 오늘 아침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기분이 상하셨으리라 걱정됩니다. 버스 무정차 신  
고는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다른 정류장의 도착예정 안내기에서는 버스 304번 정보가 잘 뜨는데, 유독 동암역사거  
리(40001), 갈병원(39250), LH7단지(35452) 정류장에서는 잘 뜨지 않네요.

↳ 버스정류소 안내기 고장신고는 인천버스정보관리시스템(424-8338)에 하실 수 있습  
니다. 신고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알려주시면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  
달하여 접수하겠습니다.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최현욱(29. 부천 중동)

### 그 이름도 그리운 '마음의 고향' 인천

학창시절을 모두 인천에서 보내고, 군 제대 후 부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인천에 갈 기회가 줄어, 친구도 많고 익숙한 인천이 그리웁니다.  
우연히 '굿모닝인천' 앱을 알게 되었는데, 깊이 있고 재밌는 인천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어 출퇴근길에 즐겨 보곤 합니다.  
2월호에서는 인현동 전자상가의 풍경이 기억에 남는데, 전자상가 산증인들의  
쉴쉴한 뒷모습을 보며 공학도로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천의 묻혀가는 소식들까지도 깊이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 ‘그 겨울’은 가고 ‘이 봄’이 왔습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바다를 한참 달려온 꽃기운이 물에 다다랐습니다.  
홍예문을 통과한 꽃바람이 자유공원을 지나 도심으로 스며듭니다.

봄을 느끼다, 봄을 즐기다, 봄을 타다...  
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動詞)입니다.  
움직여야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는 건 더디고 가는 건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사계 중 ‘봄’만 한 글자입니다.  
입 끝에서만 맴돌았다간 그냥 획~ 갑니다.

상춘(常春)이 별건가요,  
편한 복장에 물통 하나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백운산, 월미산, 수봉산, 문학산, 청량산, 만월산,  
철마산, 계양산, 소래산, 마니산, 고려산...  
봄맞이하기 좋은 우리 동네 산들입니다.



큰 사진은 홍예문, 작은 사진은(위에서 오른쪽으로) 창영초교, 고려산, 차이나타운, 수봉공원, 서구 송학고갯길



## “다친 마음, 힘모아 다시 감싸요”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학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외침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폭력도 반대했다. 폭력과 학대를 반대한 외국 교육자의 말이 요즘처럼 귀에 생생히 꽂히는 때도 없다. 얼마 전 일어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놀고, 공부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CCTV를 100%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설치를 유도한다.

전체 보육교직원 1만6천56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전담 점검 조직이 없는 중구, 동구, 연수구는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돕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범교사에 주는 포상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한다.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아동과 부모가 심리상담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 돌봄서비스와 연계한다.

### 우리시 아동학대 근절대책

-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점검 추진
- CCTV 설치 확대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안전 보육환경 조성 안내문 발송
-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모범 교사 표창 확대 등
- 학대 당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





QR코드를 찍으면  
'인천시미디어' 앱으로  
연결됩니다.

# 점자책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이용 문자를  
두꺼운 종이 위에 도드라지게  
짜 모아 만든 것이다.

# 전자책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차세대 서적으로, 인터넷의 표준 언어인  
HTML과 XML을 응용해 디지털화해  
PC나 전용단말기에서 볼 수 있다.

## 읽다, 손끝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책은 늘 사람과 함께해 왔다. 닳고 닳은 지문의 때가 스민 종이책도, 차가운 기계 속에  
따스한 감성을 품은 전자책도,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자책도.  
책은 어떤 모습으로든 그 누구에게든, 갈 곳 막혔다고 생각할 때는 길을 열어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물음에는 명쾌한 답을 주며, 실의에 빠져 있을 때는 조용히 위안을 건네주었다.  
마치 가족처럼, 친구처럼, 때론 스승처럼. 책이 함께하는 한 마음은 풍요롭고 인생은 아름답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 ▶ 점자책 *Braille Book*



## 손끝으로 세상과 만나다

글씨 한 자도 사진 한 장도 보이지 않는다. 새하얀 종이 위에 무수히 새겨진 타공만이 손끝으로 느껴질 뿐. 점자책은 미처 생각지 못하던 또 다른 책의 세계이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끝을 거쳐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소통의 창이다.

“세상에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은 많지만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틀림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맹인들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선생의 말이다. 강화 교동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치며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었다.

우리나라 점자책의 역사는 박두성 선생이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제판기로 점자를 인쇄하면서 시작됐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자 인쇄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점자 출판에 커다란 변화가 일었다. 점자는 점을 하나하나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인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지만, 출력 시스템의 속도는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 점으로 그림을 표현한 촉각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점자책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 10mm 기호에 담긴 무한한 언어

물론 두 눈이 아닌 손끝으로 책을 읽고 세상 가까이 다가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10mm도 안 되는 작은 지면 위에 새겨진 6개의 점은 각 나라의 고유한 언어와 수학, 과학, 컴퓨터, 악보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언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호를 손끝의 감촉만으로 읽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른다. 육체적으로도 고단한 일이다. 보통 300페이지 분량의 일반 책을 점자로 만들면 두꺼운 책 네다섯 권 정도가 나온다. 그 두꺼운 책을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해 읽다 보면 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깨까지 뻐근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모두 ‘볼 수 없기에’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렇다고 책 읽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제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 출신이다. 태어나서 ‘빛’을 본 건 고작 보름뿐.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투스 틸레망(Toots Thielemans)’의 연주는 그를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과 연결해 주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책을 손으로 읽거나 귀로 들으면 가까운 앞날도, 정말 먼 미래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 책이 없다면... 세상을 사는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점자책을 만들어 온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의 이영철 국장은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한 적 있나요? 점자는 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점자는 그 기본이 됩니다.”



## 어두운 세상에 빛을 뿌리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 점자책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스크린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와 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인 점자정보단말기가 확산되면서 점자책의 가치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수만 권에 이르는 책과 신문,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음성으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이 종이책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듯이, 점자책은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책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있다.

## 손끝으로 ‘보는’ 인천

### ‘굿모닝인천’ 점자판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굿모닝인천’ 점자판을 발행해 인천 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소식지는 대부분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굿모닝인천 점자판은 시각장애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상세히 다뤄 그들과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역사, 문화, 관광, 생활 정보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구에게** 인천지역의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으며, 복지관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관내 주요 기관으로도 배송된다.

**무엇을** ‘굿모닝인천’ 점자책과 ARS 음성서함을 통한 녹음도서

**어떻게** 시 대변인실(440-8306)로 연락하면, 매월 무료로 정기 구독할 수 있다.

## ▶ 전자책 E-Book

### ‘그 많던 종이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인가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책을 읽는 사람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열중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중에는 물론 이 시대의 또 다른 책인 전자책을 보는 이도 많다. 전자책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 전에 등장했다. 1971년 미국의 작가 마이클 하트(Michael Hart)는 인류의 자료를 모아 디지털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2월 현재 무료 전자책 4만6천여 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은 지난해 일정액을 지불하면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킨들 언리미티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도서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미국과 유럽 30%, 전 세계 평균인 13%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자책의 미래는 분명하다. 미국출판협회(APP)는 종이책 시장은 매년 2~3%대로 줄어드는 반면,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국내 출판사들도 새로운 전자책 관련 서비스 개발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 ‘굿모닝인천’ 이제 구글에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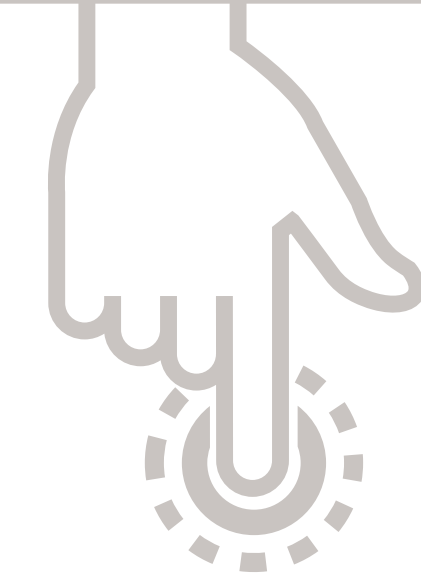
전자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포켓 속에, 가방 속에 수십 권의 책을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펼쳐볼 수 있으리라고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다. 여기에 종이책으로는 접하지 못하는 멀티미디어가 신세계처럼 펼쳐지고, 서체와 화면 밝기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책 읽기가 편하고 즐겁다.

전자책을 출판하는 ㈜바이에듀의 이재훈 대표는 전자책이 종이책의 동반자적 위치에 올랐으며, 현재 전자책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종이책에 익숙하지만 그러한 독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회사 주변 파주출판단지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종이책으로 먹고사는 젊은이를 많이 보는데, 그들조차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독



서를 합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 지난 2012년 전자책 전자도서관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실행 중이다. 인천시민들은 이 앱을 통해 무려 1만여 권에 이르는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시도 지난 201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청정보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페이퍼’ 시대에 일찍이 동참했다. ‘인천시 미디어’ 앱을 다운받으면 시청 소식지 ‘굿모닝인천’과 영문 소식지 ‘인천나우’를 비롯해 인천시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이 전자책들을 대형 포털사이트와 각종 인터넷서점으로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오디오와 동영상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자책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소비가 아닌 ‘소장’하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종이책이 이제 인류의 미래에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종이책 시장은 죽었다.” 15년 전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로 이 시대를 예측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니컬러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이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종이책의 마지막을 예언한 2015년 즈음인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종이책의 종말을 선언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 책을 찾지는 않는다. 연속으로 묶인 낱장을 손으로 만지며 넘길 때의 정서적 교감, 가지런한 서체와 페이지의 디자인을 볼 때의 즐거움, 손때 묻은 책을 서가에 꽂았을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장정의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의 행복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서점에서 신간을 검색하면서도 전자책 서비스를 신청하기보다는, 책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다. 터치 한 번으로 다운로드받아 읽고 ‘스쳐 지나지’ 않고, 촉감으로, 향기로, 추억으로 두고두고 ‘간직하는’ 것. 그것은 분명 디지털이 대신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영역이다.

## 인천, 전자책 시대 활짝

네이버, 구글, 예스24에서  
‘시 홍보책’ 본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시청 홍보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천시미디어’ 앱을 개발해 전자책 시대에 일찍이 동참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전자책의 영역을 구글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 바로북,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서점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전자책으로 인터넷서점에 서비스되는 건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인천시가 발행한 홍보책들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자책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어디서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T스토어 이북, 카카오페이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북큐브, 바로북 등

무엇을 시청 소식지 ‘굿모닝인천’ 등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시청정보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어떻게 각 스토어 안내를 참고하여 뷰어를 다운로드 → 전자책 실행



## 금빛 모래로 빛은 푸른大靑 섬

하늘도 바다도 온통 감청빛.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듯하여 '대청(大靑)'이라 부르는 섬. 그 안에는 금빛 모래로 반짝이는 옥죽포 해안사구가 신기루처럼 펼쳐져 있다. 파도와 바람이 빛은 이 신비로운 모래언덕이 최근 문화유산 보호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대청도 농여 해변

감청빛 하늘 아래 바다 옆자리에 금빛 용단을 드리운 ‘모래 섬’ 대청도. 예부터 이곳 섬에는 ‘모래 서 말은 먹어야 시집장가를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섬사람들이 언덕이 아닌 사막이라 부르던 옥죽포 사구는, 해안가에 심어놓은 바람막이 숲이 모래 길을 막으면서 66만㎡에 이르던 사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보호 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trust of Korea)’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돼, 다시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 사업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여 보호하는 캠페인이다.

.....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을 타면 대청도에 이른다. 하루 두 번 운행한다. 숙소로는 선진포 선착장 인근이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옥중도 일대가 추천할 만하다. 문의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899-3610



선진포 선착장의 어부상

## 모래가 있어 아름다운 섬들

*바다, 파도, 모래로 섬은 이야기된다.  
질푸른 바다 곁 금빛으로 빛나는 모래를 품은 섬으로 간다.  
들리는 건 파도소리고 보이는 건 수평선뿐인 그곳에서,  
지친 몸을 쉬고 영혼은 바로 세운다.*

### 하얀 모래 섬 승봉도·사승봉도

승봉도는 작아서 더 아름다운 섬이다. 걸어서 둘러봐도 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지만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아, 느리거나 조금은 게으르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섬의 이일레 해변은 모래 곁이 보드랍고 경사가 완만해 물침에 물놀이하기 좋고, 물 빠지면 조개, 소라 줍는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승봉도에서 뱃길로 10분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사승봉도에 이른다. 사도(砂島)라고도 하는 이 섬엔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 있다.



.....  
**Info** 승봉도에 가려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봉도행 쾌속선(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대부해운 www.daebuhw.com 886-7813, 4)을 탄다. 사승봉도는 승봉도에서 어선을 이용한다.

### 바다 품고 드라이브 백령도 사곶해변

육지에서 뱃길로 224km, 서쪽 바다 고틀머리에는 백령도가 맑게 피어있다. 이 섬의 사곶해변은 이탈리아의 나폴리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으로, 천연기념물 391호로 지정돼 있다. 가는 모래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자동차로 달려도 바퀴자국조차 나지 않는다.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을 벗어나 해변 위를 달리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하다.

.....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우리고속훼리 887-2891~5)을 탄다.



### 바다 위의 신기루 대이작도 풀등

대이작도에는 풀등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모래섬이 있다. 풀등은 밀물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썰물 때가 되면 홀연히 솟아오른다. 바다가 섬을 놓아주는 시간은 하루에 단 6시간. 보일 듯 말 듯 속살을 감추며 보는 이의 애간장을 태운다. 하기가 그래서 섬은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다. 풀등은 섬 전체에 고운 모래가 완만히 깔려 있어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파도가 쓰다듬고 간 모래는 폭신평신향 걷기 좋다. 물이 빠져 나가면서 생긴 작은 웅덩이에 몸을 담그고 망중한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우리고속훼리 887-2891~5, 대부해운 886-6669)을 타고 대이작도로 간 후 풀등으로 간다.



## 중국의 취향

중국이 전 세계 아웃바운드 시장 1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가 6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43.2%를 차지하는 수치로, 20~30대 젊은 여행객이 늘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등 관광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한류와 쇼핑 같은 천편일률적인 여행 콘텐츠로는 유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유커 6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최대 관광 고객인 중국을 공략하려면 먼저 중국을 알아야 한다. 인천의 관광 포인트별로 중국인들의 취향을 알아본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特別

[tèbié]  
특별하다

중국인에게  
차이나타운은 식상하다?!

##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면 특별하다

인천역 맞은 편, 패루(牌樓)를 지나면 붉은 유  
혹으로 넘실대는 차이나타운이다. 중국인들에  
게 차이나타운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30여 년 전  
머나먼 이국땅에 뿌리 내리면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는 본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중국식  
사당 의선당,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 학교인 중  
산학교, 1930년대 지어진 중국식 가옥 등 발  
길 닿는 곳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거린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을 지나 이르는 일본 거리에  
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긴다. 한국에서 중국, 일본까지. 나라  
와 나라를 넘나드는 재미는, 개항의 역사를 품  
은 인천이기에 누릴 수 있는 여행의 묘미다.

문의 차이나타운 [www.ichinatown.or.kr](http://www.ichinatown.or.kr)  
인천역 관광안내소 777-1330

유커 쇼핑 리스트  
1순위는 화장품

## 인천시가 인증하면 더 좋다

유커 600만 명 시대, 그 가운데 20~30대 젊  
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한  
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이들이 주로 검색하는  
여행 관련 키워드 중 하나는 ‘한국에서 꼭 사  
야 할 화장품’이다.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이 바  
르고 나온 립스틱, 아이돌 그룹이 바른 화장  
품은 젊은 유커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휴



# 好吃

[hǎochī]  
맛있다



띠끄(Huetique)는 전국 최초의 지역 화장품 공동판매점으로, 인  
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주요 타깃이다. 2012년  
차이나타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회관 2호점, 인천항 출국  
장 3호점을 열어 ‘Made in Incheon’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  
히 인천 화장품 제조사의 공동 브랜드 ‘어울(Oull)’은 인천시가 인  
정하는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인들의 마음까지  
메이크업하고 있다.

문의 띠끄 [www.huetique.com](http://www.huetique.com), 777-5711

‘짜장면’  
중국에서도 통한다

## 원조 이진 한국식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 집이 어디인가요?” 중국 음식을 한국에서 찾는다  
고 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필요 없다. 요즘 중국에서는 까만 춘장  
에 캐러멜 소스를 버무린 한국식 짜장면이 인기다. 짜장면은 중  
국 산둥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우리나라에는 개항기 중국 상인들이  
인천항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만들어 팔면서 역사가 시작됐  
다. 1912년 짜장면을 처음으로 식탁에 올린 요릿집 ‘공화춘’은 짜  
장면박물관으로 간판을 다시 달고 여전히 성업 중이다. 차이나타  
운 내 요릿집 ‘만다복’의 곡중화(42)씨는 “겉쫑하면서도 단맛이 강

한 한국식 짜장면의 독특한 맛에 이끌려 중국  
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한다. 한편  
만다복에서는 요즘 본토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중국식 짜장면까지 맛볼 수 있다. 춘장 약간  
에 고기를 담백 넣어 100년 전 요리법으로 빚  
어 낸 ‘백년짜장’은, 그 맛이 담담하면서도 깊  
고 풍부하다.

문의 만다복 773-3838,

짜장면박물관 [www.icjgss.or.kr/jajangmyeon](http://www.icjgss.or.kr/jajangmyeon), 773-9812

대장금 ‘한식’부터  
별그대 ‘치맥’까지

## 대륙의 입맛 사로잡은 K-Food

한류 열풍이 만리장성을 넘어 대륙의 입맛까  
지 사로잡고 있다. 드라마 ‘별그대’에서 한송이  
가 먹던 ‘치맥’이 유행하고, 한국식 갈비와 불  
고기부터 떡볶이, 닭강정 등 ‘길거리 한식’까지  
인기다. 그 시작은 이미 10여 년 전 방영한 원  
조 한류 드라마 ‘대장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브  
라운관에 펼쳐진 화려한 궁중음식의 향연은  
중국인들에게 한식은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구월동에 있는 ‘영빈관’은  
외관부터 고풍스러운, 한국의 미가 흐르는 15  
년 전통의 한식당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  
회 기간에 남북 고위급 오찬 회담이 열리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  
의 방문도 부쩍 늘었다. 솔잎돌갈비구이를 비  
롯해 20여 가지 야무지고 정갈한 음식으로 차  
린 ‘라운 한정식’이 인기 메뉴. 한식 본연의 품  
미를 담은 정성스러운 상차림에 유커들은 연  
신 “하오츠(맛있다)”를 외친다.

문의 영빈관 [www.youngbinguan.co.kr](http://www.youngbinguan.co.kr), 428-0028



# 好玩儿

[hǎowánr]  
재미있다



## 가장 좋아하는 한류 스타는 '김수현'

### '별그대' 인천에서 다시 보기

유커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은 누구일까.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빅 데이터에 따르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배우 김수현이 대륙이 가장 사랑하는 한류 스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별그대'의 인천 촬영지 투어와 뷰티 프로그램을 더한 '별그대 in 인천+뷰티웰빙투어'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도민준이 천송이를 구한 곳에 오다니 감격스러워요. 인천에서 두 사람의 흔적을 쫓을 수 있어서 기쁠요." 중국 하남성에서 온 양신제(30)씨는 배우 김수현 앞이를 하는 '별그대' 팬이다. 드라마 속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을 잇는 '송도석산'은 '별그대 in 인천' 투어의 하이라이트 코스. 유커들은 천송이가 몰던 빨간 승용차 앞에서 환희의 서터를 누르고, 석산 난간에 '별 비녀'를 걸며 사랑을 갈구한다. 지금, 인천이 드라마 촬영지를 넘은 특별한 여행지로 대륙인들의 가슴에 선명히 새겨지고 있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67 인천도시공사 260-5328



## 백화점·면세점보다 전통시장

### 스마트한 유커들의 '핫 플레이스'

명동 일대와 면세점, 백화점 등을 돌며 평평 쓰던 '큰손' 유커는 이제 옛말이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합리적인 젊은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비싼 호텔보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고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전통시장도 달라졌다. 신포국제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유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도 있는 '신포통보'를 발행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껏 신포시장을 찾

은 외국인 관광객은 3만여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부평지하상가 또한 유커가 찾는 '핫 플레이스'다.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 실과 외국어 방송설비를 갖추고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문의 신포국제시장 www.sinpomarket.com, 772-5812  
부평역지하상가 www.bpsm.co.kr, 523-9991

## 탈(脫)서울이 트렌드

### 서울 찍고, 인천에서 놀기

'3탈(脫)', 이른 바 탈서울, 탈패키지, 탈호텔이 중국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유커라면,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서만 맴돌지 않는다. 해외여행에 익숙한 젊은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명동 일색이던 여행지가 지방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인천도 고유한 매력으로 항만과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유커를 점차 흡수하고 있다. 우리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중국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만든 관광상품 '별그대 in 인천'도 시작이 좋다. 먼저 중국과 일본 관광객 3만5천 명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올해 안으로 1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천년 역사의 땅 강화도를 상품으로 개발해 외국 관광객들을 유혹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260-5328

# 玩乐

[wánlè]  
즐거다



## 오랜 이웃, 화교 역사에서 걸어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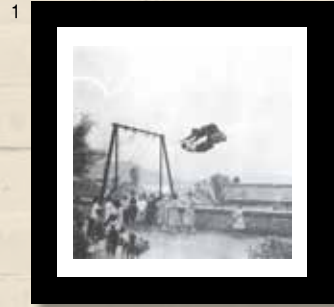
100 년이 넘는 화교의 역사가 어둑한 골방에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다.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지난 3년 여 동안 인천화교협회를 통해 화교들의 100년간의 삶이 담겨있는 사진과 문건들을 수집해 세상에 내놓았다. 공공 숨겨져 있던 화교들의 지난한 삶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대한민국에서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은 사실상 인천이 유일하다. 현재 인천의 화교는 3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차이나타운을 중국인들이 짜장면을 팔고, 중국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만 여긴다. 차이나타운엔 오랜 세월 외국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았던 화교들의 기록지 않은 타향살이의 아픔과 차별이 녹아있다. 이번 인천대 중국학술원에서 수집한 사진과 문건 중에는 귀한 자료가 많다. 화교들의 삶이 녹아 있는 6천장이 넘는 옛날 사진과 5만 건에 이르는 문건 중에는 인천항 개항 초기 청국 조계지와 중국인 묘지도면, 청국영사관·조선총독부, 중국·대만 등과 주고받은 공문, 토지·건물 매매 계약서, 상점 현황과 요리사 명부, 협회 회의록과 일지, 인천화교학교 교재 등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희귀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문건은 차이나타운 분뇨처리에 관한 기록이다. 인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돈은 얼마나 썼는지 등을 적어놓았다. 또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가 청국거류지 일대를 조사한 측량도에는 청관거리에 늘어난 주택과 상점 건물형태, 면적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주인이 누구였고, 무엇을 팔았는지까지 알 수 있어 1910년대 차이나타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제공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게재된 사진들은 '한국화교생활사 사진전'에 전시된 것들로 인천 화교들이 인천대 중국학술원에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그네(1954년)\_ 인천화교중산중소학 제공 2 성가(1970년대)\_ 손준영 제공 3 가시는 길(1992년 선린동)\_ 류호곤 제공 4 인천시민의 날(제10회) 기념대회(1974년) 5 인천화교학교 기숙사\_ 인천화교중산중소학 제공 6 차이나타운 거리축제 7 용현분교(1954)\_ 인천화교중산중소학 제공 8 화교절 축하행사인 인형놀이(1953년)\_ 한국인천화교협회 제공 9 억고사감(1992년)\_ 류호곤 제공 10 치파오와 납작구두(시기 1936년)\_ 손감위 제공 11 청년절\_ 인천화교협회 제공 12 경직(3학년 갑반)(1954년)\_ 인천화교중산중소학 제공 13 차렷(시기1930년대)\_ 손세혜 제공





오색기(五色旗), 중화민국 건국 | 1912년(추정)  
제공 인천화교협회



중화루 | 1940년대  
제공 손덕준



절차탁마(切磋琢磨) | 1963년  
제공 인천화교중산중소학



차이나타운 거리 축제 | 2014년  
제공 민경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인천 화교 연구의 '싱크탱크'

인천대 중국학술원은 인천에서 중국 연구에 관한 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2014년 5월 만들어져 '차이나프로젝트'와 '창조도시 인천' 구축을 위한 거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학술원은 지역과 연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학문과 연구 교류를 통해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중국학 커넥티비자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성장 동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인재 교류는 청년 창업과 취업 기회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은 중국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최근 화교와 관련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국제적 조명을 받을 정도로 화교 연구에 관한 한 국내에선 독보적인 존재이다.

학술원은 그간 중국과 인천을 잇는 평화와 화합의 다리를 의미하는 '화·인·화·교(華仁和橋)사진전, 전시회를 시리즈로 열었고 화교포럼 운영, 인천화교협회와 공동으로 100여 년 동안의 인천화교 사진, 문건자료들을 전수조사 한 후 이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있다. 인천화교협회의 사진과 문건 발굴은 학술원이 지난 3년 동안 화교들과의 교류와 설득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중국학술원에서 화교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송승석 교수는 "차이나타운과 화교들을 제대로 복원하고 대우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차이나타운은 한·

중 우호의 증표와 중국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의미가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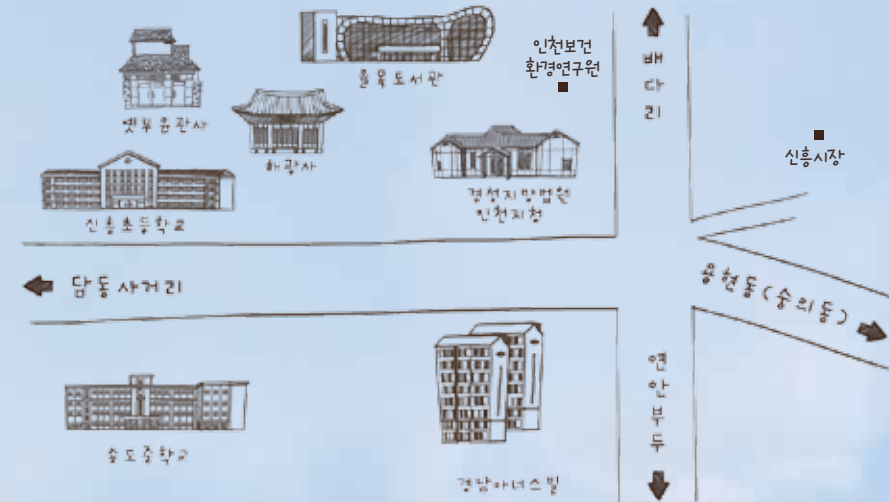


## 양지바른 언덕 아래 국치<sub>國恥</sub>의 그늘이 있다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밭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호에서는 수인역 부근 한 아파트 옥상 위에서 울목도서관 밑 신흥동 쪽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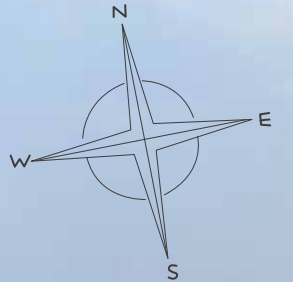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신흥초교 ② 동본원사 ③ 송도중학교 ④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⑤ 해광사  
⑥ 사이다 공장 ⑦ 인천부윤 관사 ⑧ 울목도서관 ⑨ 도립병원



까치밭을 든 지점 | 신흥동 강남아너스빌아파트 (중구 서해대로 439)

수인역 부근에는 예전에 정미소 공장과 창고가 즐비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들로 이곳은 이웃 동네와는 풍경이 어딘가 달랐다. 이번에 까치밭을 든 곳은 수인역 앞 강남아너스빌 아파트(29층) 옥상이다. 2005년 신축한 이 아파트 자리에도 커다란 창고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흥동(新興洞)은 글자 그대로 ‘광복을 맞아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자’는 뜻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과거의 일본인 동네 이미지를 벗어 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동안 정미소, 적산(敵産)가옥 등 왜색풍의 건물이 즐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햇볕 잘 들고 앞이 시원하게 트인 이 동네에 많이 모여 살았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 많이 사라졌지만 신흥동 골목을 걷다보면 여전히 일제 압제의 흔적이 곳곳에서 배어난다.



1 신흥초교 포탄 2 동본원사 3 해광사 오르는 계단 4 해광사 시왕전 5 동인당(옛 사이다 공장) 6 율목도서관 구관 7 인천 부윤집

① **신흥초교** : 1883년 일본인이 자신들의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아사히(旭)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천에 최초로 세운 학교다. 본관 바로 앞 정원에 화색으로 칠 포탄 3발이 안내판과 함께 전시돼 있다. 1904년 월미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당시 자폭한 러시아 함대대에서 수거한 포탄이다. 일제는 처음에 이 포탄을 인천부청(현 중구청) 마당에 전시했다가 승전을 선전하기 위해 학교로 옮겨 놓았다. 6.25 전쟁 중 공산군은 인천지역 의용군을 이 학교로 강제 징집해 전선으로 보냈다.

② **동본원사** : 로알담동맨션에 있었던 일본 사찰로 1885년 동본원사 부산별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했다. 1892년까지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신흥초 전신)으로도 활동했다. 현재의 송도중학교 교내에 있던 서본원사와 쌍벽을 이뤘다.

③ **송도중학교** : 1906년 10월 3일 북한 개성 송악산 산지현에서 윤치호 선생이 '한영서원(韓英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학교다. 6.25 전쟁으로 임시 휴교했다가 남한으로 피란와서 인천시 송학동(현 남부교육청 자리)에 남녀 피란 학생 500명을 모아 다시 문을 열었다. 1953년 일본인 절 서본원사가 있던 현재의 답동으로 이전했

고 1970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송도고, 옥련동으로 이전)를 분리했다. 1982년 '개성상인' 동양화학 회장 이회림 이사장이 취임했다. 학교 옆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에 HED, 즉 북파공작원 사무실이 있었다.

④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 내동 감리서에서 1910년 9월 화정 2정목(신흥동 2가)에 신청사 대지 680평 건평104평 규모로 건립했다. 1912년 조선총독부가 재판소령을 개정한 결과 경성지방법원을 인천지청으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인천부,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으로 확장했다. 1932년 재정 부담으로 폐청하고 등기소만 남겨 두었다가 1935년 옛 감리서 터에 신청사를 건축하고 이전했다. 인천지청 터에는 한때 항도실업학교가 들어섰고 현재는 중구노인복지관이 자리하고 있다.

⑤ **해광사** : 1908년 준공된 일본 불교 사찰로 원래의 명칭은 화엄사이다. 본전은 해광사 대웅전을 세우기 위해 철거되었고 뒤에 있는 빨간 벽돌의 시왕전은 원래부터 있었다. 경내에 일본식 석물이 남아 있고 정문 석주에는 일제강점기에 새겨진 글자가 써있다. 사찰로 올라가는 계단의 상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며 하부 계단은 그 자리

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계단을 새로 만든 것이다. 6.25전쟁 때 인천을 점령한 인민군은 이 절에 정치보위부를 설치하고 우익계 인물을 닦치는 대로 체포했다. 인민군이 퇴각한 후에는 잠시 미군이 이곳에 진을 치고 대포를 설치하기도 했다. 6.25 전쟁 중 전사한 경기도 출신 60여 명영 유해를 해광사에 봉영했고 최근까지도 그 유해가 안치돼 있었다.

⑥ **사이다 공장** : 해광사 부근에는 '동인당'이라는 골동품 가게가 있다. 이곳에 1905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다 공장인 일본인이 창업한 인천탄산수제조소가 있었다. 광복 후 이 공장은 (주)경인합동음료로 회사명을 바꾸고 '스타사이다'라는 이름의 사이다를 생산했고 이는 훗날 칠성사이다로 이어진다. 당시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사이다 병 뚜껑 만드는 부업을 많이 했다고 한다.

⑦ **인천부윤 관사** : 부윤은 지금의 인천시장이다. 신흥동 1가에 인천부윤이 사용했던 관사가 있다. 지금은 외관이 다소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일본풍의 자태를 풍기는 주택이다. 1966년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가 새롭게 세워지기 전까지 시장 관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⑧ **율목도서관** : 신흥동 뒤편에 동네를 품고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다. 그 정상에 시립도서관(현 율목도서관)이 있었다. 이 자리는 일본인 정미업자 리카다게의 저택으로 현재도 일본식 정원의 흔적과 여러 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1946년 이 자리로 옮긴 시립도서관은 6.25 전쟁 중에 책 5천권을 분실 혹은 소실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참고열람실을 개설하고 2층짜리 신관을 신축하는 등 한동안 전국 도서관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다. 시립도서관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08년 말 폐관을 하고 율목도서관에 그 자리를 내줬다. 시립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남동구 구월동에 새 터를 마련해 이전했다.

⑨ **도립병원** :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선 자리(신흥동 2가)에는 오랫동안 시립병원(현 인천시의료원)이 있었다. 시립병원은 1883년 개설한 일본영사관부속 관립 인천일본의원인 그 시작이다. 이 병원은 1936년 현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 이전해 개원했고 광복 후 1948년 경기도립인천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97년 동구 송림동으로 이전해 현재의 인천의료원이 되었다. 신흥동 도립병원에는 한동안 경기간호전문대(가천대학교 전신)가 있었다.

## “바닥은 좌절이 아니라 도약대입니다”

요양원 복도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한 사진이 붙어 있다.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지만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머리카락만 보일 뿐이다. 남들 눈엔 대통령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겐 귀한 사진이다. 지나온 자신의 시간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어차피 할 거라면 주머니 내밀지 말라.”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 씀이다. ‘가경요양원’의 광정숙(56) 원장은 그렇게 살아왔다. 바닥 까지 갔어도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바닥을 도약대 삼아 오펝 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2004년 시련이 시작되었다. 계양구에서 전선 제조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남편이 3년 병치레 끝에 세상을 등졌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 공장에 나갔지만 경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파이(π), 3.14..., 전선 용어는 그에게 마치 외계어와 같았다. 거래처가 하 나둘 떨어져 나갔고 마침내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 남편이 일궈 던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 출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딸과 아 들 세 식구만 덩그러니 남았다. 뭐든 닥치는 대로 일해야 밥이라 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먼저 지역 일자 리정보센터에 등록했다. 며칠 후 임시로 일할 수 있다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애꿎게도 그곳은 남편과 자주 갔던 일식집이었다.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왜 혼자 오셨어요?” “주방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저 좀 써주세요.”

매일 저녁나절부터 5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하얀 접시가 수없이 쏟아져 내려왔다. 이후 평소에 입에 도 대지 않던 보신탕집에 가서 행주치마를 둘러맸고, 마트에서는 이불을 팔았다. 초등학교 특수보조교사, 주민센터 사회복지 보조 요원도 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다 했다. 일을 하면서 틈틈 이 공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다.

2009년 우여곡절 끝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를 통해 ‘생 계형 창업자금’ 2천500만원을 받아 계양구 병방동에 12평 규모 로 재가복지센터를 차렸다. 밤낮없이 일한 결과 그는 3년 8개월 8 일 만에 그 돈을 다 갚았다. ‘우수 성공 사례자’로 꼽혀 여성경제 인의 날에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2012년 11월 부평구 삼산동 건물 한 층 72평을 2억2천만 원에 전 세 내 가경요양원(노인공동생활가정)을 창업했다. 얼마 전 그 층 을 아예 매입할 만큼 사업은 자리 잡았다.

사모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원장님까지. 지금껏 그의 삶 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심한 굴곡이었지만, 앞날은 요양원의 이름 처럼 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가경(嘉慶)’은 즐겁고 경사스 러운 뜻이다.





1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02-2681-2075, 010-2946-4412w

3

명품클래식시리즈Ⅰ  
임동혁&김수연 듀오콘서트 '슈베르트 포 투'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588-2341

10

라이온스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887-7971~2

11

Music Passport to the World  
디어필드 아카데미 아시아투어 연합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02-525-3538

1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학생 5천원  
☎1588-2341

14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 Spring Concert  
'봄꽃놀이 떠나보세! with. JK김동욱 & 웅산'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4만원, S석 3만5천원, A석(2층) 3만원  
☎580-1135



15

2015 남진 50주년 기념콘서트  
"감사합니다"--인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1544-1555

18

2015 커피콘서트Ⅲ  
'박준면의 음악과 모노드라마가 흐르는 방'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1588-2341

19

아르츠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앤 클래식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899-1516~7

20

밴드데이XⅡ '좋아서 하는 밴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1588-2341

21

아마하양상블의 '봄의 왈츠'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434-6700

영화 상영 '넛잡: 평콩 도둑들'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16~7

21

린나이팝스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무료  
☎760-3457

22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442-3578

24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2만원  
☎580-1135

25

국악기 체험공연 '달강달강'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단체 1만2천원  
☎811-0550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2만원  
☎580-1135

우리마을 문화축제 '마을합창제'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53-5710



26

인천시립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설레임 즈려 밟고'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1588-2341

국악기 체험공연 '달강달강'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단체 1만2천원  
☎811-0550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2만원  
☎580-1135

27

제18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873-7772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2만원  
☎580-1135

28

어린이 캣츠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1544-3901, 010-54101-1814

28

Joy Spring with Ash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VIP석 3만원, R석 2만원  
☎010-9799-9787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2만원  
☎580-1135



29

어린이 캣츠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1544-3901, 010-54101-1814

김푸르나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3월 9일



The borderless body- 뉴런

3월 5일~3월 29일	부평작가열전 두 번째 이야기-부평양상블展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3월 7일~3월 12일	제15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문인화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3월 11일~3월 23일	인천대, 이상해?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다솜
3월 13일~3월 19일	제2회 이경주 서양화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3월 14일~3월 15일	2015 인천 난 명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3월 18일~3월 29일	AAI 2015(인천대학교 동문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가운갤러리
3월 20일~3월 26일	제4회 멀티포토 회원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3월 26일~4월 3일	인천카톨릭대학원, 도시-사람전2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3월 26일~4월 3일	이정근 도예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3월 27일~4월 2일	대한민국 인터넷 서예, 문인화 대전람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3월 27일~4월 2일	서양화 4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이 달의  
展

### 설렘 가득, 봄바람처럼 컷가를 스치는 합창

긴 겨울이 끝나고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설렘을 가득 안은 합창공연이 3월에 찾아온다. 전성기가 따로 없는 기량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합창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인천시립합창단이 2명의 지휘자와 함께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한다.

순천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에서 상임 지휘자로 활동한 이병직 지휘자가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와 같은 낭만주의 합창과 덴 데이비스의 '춤추자'(Vamos a bailar)처럼 대중적인 현대 합창곡을 들려준다.

#### 인천시립합창단 144회 정기연주회 '설렘이 즈려 밟고'

일시 3월 26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1588-2341

### 이름 그대로, 좋아서 하는 밴드

거리 공연 중 이름을 묻는 관객에게 "저희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요"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 '좋아서 하는 밴드'. 2007년 결성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빈 이들은 거리의 예술이 생소한 한국 땅에 성공적으로 버스킹의 발자국을 찍은 어쿠스틱 밴드다. 멤버 각자 멜로디를 쓰고 직접 노래한 곡들에는 일상의 솔직함과 소박한 행복이 녹아 있으며, 그 둘레엔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맴돌고 있다. 편안한 선율에 실린 일상에 기댄 가사는 내 이야기 같아 정겹고 아련하다. 길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 '좋아서 하는 밴드'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에 취해보자.

#### 밴드데이XII. 좋아서 하는 밴드

일시 3월 20일(금)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1588-2341



### 여배우 박준면의 변신,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오다

3월의 커피콘서트는 2008, 2013 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박준면이 꾸미는 색다른 무대다. 뮤지컬 '시카고' '웬트' '레미제라블' 등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해 온 그녀가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대한민국 대표 그룹사운드 강산에 밴드의 멤버 등 화려한 세션과 함께하는 그녀의 진한 블루스 발라드가 관객들의 감성을 촉촉이 적실 것이다.

#### 커피콘서트III 박준면의 음악과 모노드라마가 흐르는 방

일시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탄생 80주년 맞아 아시아 초연

이름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뮤지컬 탄생 80주년을 맞아 인천을 찾아온다. 마거릿 미첼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뮤지컬이다. 2004년 초연 이후 9개월 동안 약 90만 명의 관람 기록을 세운 대작이다. 미국 남북전쟁 전후의 남부를 무대로 스칼릿 오하라라는 여성이 겪은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 벌어지는 이야기. 그녀의 인생 역정을 통해 생존과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스칼릿 오하라 역에 바다와 서현, 레트 버틀러 역에 임태경, 김법래, 주진모, 애슐리 역에는 마이클 리와 정상윤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나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일시 4월 3일(금)~5일(일)  
3일(금) 오후8시 / 4일(토) 오후2시, 7시 / 5일(일) 오후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4만원 /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문의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3회 정기연주회 'Great 시리즈 I'

일시 3월 13(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1층) 1만원, S석(2층) 7천원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438-7772

음악만큼 계절을 타는 것이 또 있을까?

'봄' 하면 비발디의 시계 중 '봄'을 많이 떠올릴 만큼 음악은 봄과 함께 설렘을 가득 담아낸다. 그런데, 계절과 더불어 클래식 공연 기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장들의 탄생과 서거 연도다.

2015년은 핀란드 작곡가 잔 시벨리우스와 덴마크 작곡가 카를 닐센의 탄생 150주년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념 공연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이들의 작품을 'Great 시리즈'로 묶어 선보인다.

'Great 시리즈'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작곡가 시벨리우스, 닐센,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대표작인 교향곡을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의 해석으로 감상하는 시간으로, 3월과 4월, 그리고 11월로 이어진다.

먼저, 그 첫 시간인 3월에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인 정치용의 지휘로 시벨리우스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는 정치용 지휘자는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

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작품의 국내 초연을 가장 많이 한 지휘자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서곡도 함께 선보인다.

또 카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함께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작품 64 중 3악장'도 감상할 수 있다.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곡은 여성적이라고 할 만큼 섬세한 아름다움의 전형적인 낭만주의 음악이어서 '이브(Eve)의 협주곡'이라고도 한다. 특히 3악장은 경쾌하고 정열적이며 바이올린의 현란한 연주효과와 박력 있는 내용을 합한 바이올린 음악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악장이다.

한편 4월 공연에서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임 지휘자로 활동 중인 장윤성의 지휘로, 시벨리우스가 생전에 딱 한 곡만을 남겼지만 베토벤과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비견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시 '핀란드야'를 연주한다.





##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진짜 소통이죠”

### 유정복 시장, 지역 기업 ‘생생투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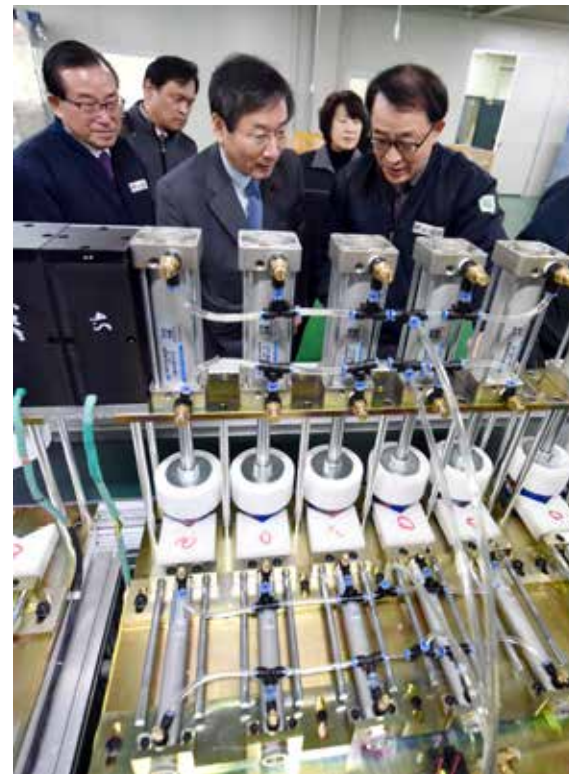
글 김윤경 I-View 편집위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0일 ‘기업현장 생생투어’를 시작했다. 기업현장 생생투어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소 현장을 우선으로 한 행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유 시장의 뜻이 담겨있다. 이날 송도지식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광학검사장비 제조 기업 ‘에이타이’, 개성공단에도 입주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화연료펌프’, 자동차 배선 전문기업 ‘경신’ 등 세 곳을 차례로 방문한 유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시청 활동에 바빠 인제야 찾아오게 됐다. 기업 현장 방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산업현장 방문 중 생산라인 견학에만 2시간 이상을 할애해 기업의 속사정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작은 부품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유 시장은 기업들에 “인천의 미래를 확인하러 왔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특별히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번 산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매달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두세 곳을 찾아 인천시와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홈페이지 개설

‘2015 세계 책의 수도’ 홈페이지(worldbookcapital2015.incheon.go.kr)가 지난달 24일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유네스코 지정 책의 수도 인천시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부터 1년간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각종 정보는 국문과 영문 등 두 개 언어로 서비스하며,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시는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3월 8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벌여 100명에게 최신 베스트셀러 도서를 증정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1995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제정하고, 2001년 11월 2일 채택된 유네스코 결의안에 따라 출판, 도서관, 서점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회 해마다 세계 도시 중에 하나를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는 4월 23일부터 1년 동안 저작권, 출판문화산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독서 문화행사의 중심도시로서 도서 및 독서와 관련된 일체의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인천은 세계 15번째, 아시아 3번째, 우리나라 도시 최초로 2013년 7월 19일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5



우리 시는 이달부터 서해 5도 등 인천 주요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운임 지원을 받게 되면, 여객선 왕복 요금은 백령도가 6만5천원, 연평도가 5만4천원이 된다.

운임 지원 대상 항로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소청도, 덕적도, 자월도 등이다. 운임 지원은 인천시민뿐 아니라, 타 시·도 주민에게도 적용되며 1인당 연 3회로 제한된다.

문의 시 해양도서정책과 ☎440-4983, 웅진군 관광문화과 ☎899-2210

## 서해 5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 50% 할인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해 ‘전국에서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시는 교통약자들의 보행자 사고율, 특수 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교통수단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등에서 각각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편 우리 시의 교통약자는 80만9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관실 ☎440-3865

## ‘교통약자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





## 프레지던트컵 지원 전담팀 구성



우리는 오는 10월 6~11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시는 프레지던트컵 대회가 225개국에 30개 언어로 중계돼 시청 인구가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회 기간 중 인천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개·폐회식과 연계한 인천시 차원의 홍보 행사, 대회 기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투자유치 설명회도 준비할 방침이다. 송도컨벤시아를 활용해 골프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1745

## ‘문화누리카드’ 개인별로 발급

우리는 지난달 23일부터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카드당 연간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에게 세대별로 발급됐던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발급된다. 발급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www.nanumticket.or.kr) 신청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인천문화재단 ☎455-7148, 문화누리 콜센터 ☎1544-3412

## DVD자료, 도서관 밖에서도 보세요

인천중앙도서관은 올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을 앞두고 독서 장려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관외대출위원을 대상으로 DVD자료 대출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시행하는 DVD자료 관외대출은 회원 관람등급에 맞춰 자료를 대출하며, 부모는 초등이하 자녀의 회원증으로 자녀의 연령에 맞는 DVD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DVD자료는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되며, 대출기간은 책과 동일하게 15일(대출일 포함)이다. 1회 7일간의 반납 연기도 가능하다.

문의 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420-8414

## 청라·영종 도서관 세 곳 6월 문 열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공공도서관 세 곳이 오는 6월 문을 열 전망이다. 청라1도서관은 서구 연희동 제1문화공원에, 청라2도서관은 서구 경서동 청라중앙호수공원에, 영종하늘도시 2도서관은 하늘도시 17호 공원에 들어선다. 이 도서관들은 지상 2~3층, 연면적 2천~4천400㎡ 규모로 자료실·유아방·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개관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www.michuholib.go.kr)에서 도서관 명칭을 공모한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증정하고, 도서대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미추홀도서관 ☎440-6665



## 수륙양용버스, 아라뱃길을 달린다



물 위와 육지를 넘나드는 국내 최초의 수륙양용버스가 오는 5월 경인아라뱃길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주)는 오는 4월 중순 선착장 공사를 마치고 약 2주간 시험운행을 거친 뒤 정식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륙양용버스는 하루 7회 안팎으로 운행되며, 회당 운행시간은 육상 60분, 해상 10~15분을 합쳐 약 70분이다. 항해사, 운전자, 관광가이드, 안전요원 등을 제외하면 회당 30~3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수륙양용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이며, 운임은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5천원,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2만원으로 책정됐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52

우리 시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인천의 인물’을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안에 대상자를 1천 명 안팎으로 추린 후 연말에 ‘올해의 인천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의 인물 선정 대상은 인천 출신으로 중앙정부 산하 기관장·임원, 국가 공사·공단 장,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인천시 전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방송 연예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이다. 인천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이라면 외국인도 인천의 인물에 포함될 수 있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44

우리 시는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경제, 문화 특성을 고려해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유형을 다양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3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구로부터 신청 받는 한편, 시유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해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시 주거환경정책과 ☎440-3472

## 전국 처음 주거지원도 맞춤형으로

## 깡이부리마을, 주거복지 우수사례 대상 받아



동구 만석동 깡이부리마을 정비 사업이 지난달 4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관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깡이부리마을 주거지 재생사업은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깡이부리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추진된 전국 최초의 도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면 철거 대신 마을의 일부를 보존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 사업은 작년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복지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문의 시 주거환경정책과 ☎440-3454



## NEWS BRIEF

### ‘주말 서해 바다열차’가 돌아왔다



주말 서해바다열차 운행이 3월 1일부터 재개됐다.

용유역을 거치는 인천 자기부상열차 개통 시점에 맞춰 바다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자기부상열차 개통이 늦어지면서 운행을 재개하게 됐다.

바다열차는 주말인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행되며, 운행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용유임시역행(하행)은 오전 7시 29분부터 오후 5시 31분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서울역을 출발한다. 서울역행(상행)은 오전 8시 47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역시 약 1시간 간격으로 용유임시역에서 출발한다.

문의 코레일공항철도 ☎1599-7788

### 검단·강화에도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우리시는 올해 안에 서구 검단지역과 강화군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단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관리를 맡게 된다.

인천에는 현재 7개 지원센터가 보육시설 878곳의 급식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곳이 많아 지원센터의 식단 관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1억7천만 원을 투입해 총 9개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서구청 ☎560-4377

### ‘강화 역사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자문위원 위촉

우리시는 지난달 9일 ‘강화 역사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인 배국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까지 강화 유적 현황 조사, 학술회의, 시민 홍보 등을 거쳐 등재 대상 유적을 선정하고 12월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는 유네스코가 강화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시 문화재과 ☎440-4472

### 세종병원 인천分院 건립



부천시에 본원을 둔 세종병원이 인천 분원을 건립한다. 우리 시는 지난달 9일 해원의료재단 IMC 세종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계양구 작전동 909에 들어설 세종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총넓이 3만8천737㎡, 282병상 규모다. 해원의료재단은 813억 원을 들여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병원 건립공사에 착수,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세종병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계양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982년 개원한 세종병원은 전국 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2017년 심장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심장 질환 전문 치료기관으로 유명하다.

문의 시 시설계획과 ☎440-1703

## 공동구매, 로컬푸드마켓, 프랜차이즈, 농장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연결한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동그라미협동조합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식자재인 채소와 축산물 직거래를 통해 싸고 좋은 물건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설립 취지는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어놓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나눔과 봉사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민주적 관리 체계로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이 협동조합은 2013년 11월 13일 창립됐다. 현재 조합원 수는 1만여 명에 달한다. 주요사업은 공동구매, 로컬푸드마켓, 프랜차이즈, 동그라미 농장 운영 등이다. 공동

구매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마켓은 신선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시골마을과 조합원들을 연결해 신선한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고, 차별화된 유통구조로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랜차이즈는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해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동그라미농장에서는 시골마을과 공동출자 형식으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 공급한다. 현재 경상북도 봉화 현지농장에서는 고랭지 배추, 무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서구 내 매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가좌점, 석남점, 신현점, 당하점 등 4곳으로 이곳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협동조합은 생산공장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중간거점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에게 공동구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고, 공장은 재고 없이 광고, 포장, 운송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조합원들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제품의 안정성,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동그라미협동조합은 창립 이래 사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싱싱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는 상생의 기업 마인드가 차츰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모토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있다.

문의 573-5006



## “안전·봉사·신의로 의정 이끌겠습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노경수(65)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5년 의회를 이끌어 갈 방향을 ‘안전’ ‘봉사’ ‘신의’로 정하고,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행동하는 봉사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의장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의원 연구단체, 소모임, 세미나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외에 시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인천광역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연구 모임당 5백만 원, 연 2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하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미래관광 발전연구모임’을 구성 중에 있으며, 인천대·인하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실시 등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 강화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해야

노 의장은 의원보좌관제 실시가 늦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표실했다.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과다한 업무량을 덜어주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전문위원제 보강, 인턴제 시행 등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노 의장은 시의 주요정책 방향인 재정건전화 실천에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부채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 9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를 2018년까지 4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절감에 힘쓰고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나갈 생각이다.

### 작년 안건 162건, 시정 질문 147건

노 의장은 작년 제7대 개원 후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를 통해 안건 162건을 처리했으며,

안전관리특위,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특위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또한 147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질책하는 등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평했다.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상임위원회 및 의회 주관으로 75개소의 각종 민원현장을 찾았으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9건의 ‘열린 토론회’ 장을 마련했다.

노 의장은 올해도 의회와 의장이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매섭게 비판해 달라는 주문과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 영화 ‘국제시장’은 제 얘기 같았어요

###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나요?

↳ 97년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지역 활동가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시의원으로 3선을 거쳤고, 7대 의회에 들어와 의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민원의 대변자, 생활정치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였나요?

↳ 보궐선거로 4대 시의원에 당선된 후 바로 부의장에 뽑혔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종, 용유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 인천이 고향이신데, 가장 좋아하는 인천의 명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구 자유공원을 자주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산책하기에 좋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 맥아더 장군 동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기에 더 애착이 갑니다.

###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꼭 가봐야 할 세 곳을 추천한다면?

↳ 타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공원, 차이나타운을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다 위에 조성한 최첨단 도시이기에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감상에 빠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사색하며 걷기 좋은 휴식 공간이고, 차이나타운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체력이 필수일 텐데요, 특별히 하는 운동이 있는지요?

↳ 바쁜 의정활동 때문에 예전처럼 야외로 나갈 시간이 없어요. 집 안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합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는 월미산에 오릅니다.

###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 느낌과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얼마 전에 ‘국제시장’을 봤어요. 저도 6.25 전쟁이 난 직후 두 살 때 부모님 등에 업힌 채로 고향인 황해도에서 피란을 나왔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사업이 기울면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굳은 각오뿐이었습니다. 당시 용맹을 떨치던 맹호부대 일원으로 베트남과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장품이 있나요? 그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색소폰을 가장 아깝니다. 색소폰을 접하게 된 건 6대 때 낙선한 후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정신적 안정과 여유를 주었던 애장품입니다.

### 애창곡은?

↳ ‘행복이란’ 가는 세월을 좋아합니다.

### 의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올해의 소원은?

↳ 손주가 셋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올 한 해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용범 부의장, 주민 통행불편 현장 직접 찾아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원(제2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5일, 인천교통공사가 민자 유치를 통해 유휴공간에 조성 중인 계산역사 내 상가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계산역 내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시민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산역은 경인여대 학생 3천~4천여 명의 이용으로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극심한 곳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안내나 공지 없이 공사현장이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불편사항을 청취한 이 의원은 “공사가 끝나면 특히 1~2번 출구 쪽 이동로 대부분을 상가가 점거하게 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인천교통공사의 시민 무시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8월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 120일의 결실 얻다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는 박영애(새누리 비례) 의원이 대표, 공병건(새누리 연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한구(새정치 계양) 의원이 참여해 2014년 9월에 발족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회의의 첫 번째 연구단체다. 120일간의 연구 기간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 논문(부록집 포함)’을 발간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인천시 체육 담당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체육시설 운영 위탁기관, 체육 분야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체육 관련 단체 등을 초빙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공청회,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포함한 인천 시내 1만석 이상 대형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폭넓게 연구해왔다.

## 도담초, 청람중 개교 준비상황 집중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4일(수) 개교 예정 학교 점검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4단계에 설립되는 인천도담초등학교(30학급)와 인천청람중학교(25학급)를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관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의 적정성, 통학로 확보, 학교급식 준비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의 별칭이 ‘인천의 푸른 보석’인 것처럼 도담초와 청람중도 인천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보석 같은 학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전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인천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오후, 특위 위원,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교육청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과 ‘안전관리분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먼저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 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특위와 시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던 인천시 전역의 위험시설, 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나온 개선 또는 시정 사항들에 대해 주관부서 및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우수한 조례들이 전국 단위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달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인천시의회 김정현 의원(중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이 우수상을, 이한구 의원(계양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및 이도형 의원(계양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이 각각 장려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좀 더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해 많은 학생들의 화생을 부른 학교현장교육과 관련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 관리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위 활동기한 연장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일 제4차 특위 회의를 개최해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구성된 특위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및 토론회, 타 시·도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지역 주민 피해사항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하지만 주민과 SK인천석유화학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발족된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이 참여하게 대립해 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주민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제3자 검증 등을 통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등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위는 활동기간을 4월 2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박봉의 시 직원들 위해 구내식당 개설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통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_편집자 주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시립도서관 열람자 증가

인천시립도서관 2월분 도서열람통계를 보면 인천시민의 독서열 및 탐구욕을 살펴 볼 수 있다. 철학·종교 부문이 32명, 역사·지리 부문이 122명, 어학·문학 부문이 221명, 미술·연예 부문이 205명, 정치·법률·경제 부문이 74명, 공학·공업 부문이 53명, 산업·교통 부문 14명, 잡지 기타 아동문고 19명 해서 총 1천196명이다. (1953년 3월 25일자)



1946년부터 울목동 일본인 정미업자의 별장을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했다.

### 한미문화관 신설

인천시에서는 한미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 문화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한미문화관의 설립을 오래 전부터 계획 추진 중이던 바 드디어 미국공보원의 원조로 오는 3월 7일에 개관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 문화관은 시립박물관 내에 신설될 예정인데 3월 7일 하오 2시에 거행될 개관식을 계기로 영화, 음악, 미술, 도서, 사진 등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이라 하여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1954년 3월 17일자)

### 재인(在仁) 화교 가장 행렬

인천화교자치회에서는 3.1절을 겸하여 자유중국의 영도자인 장개석 총통의 복직시무 제4회 기념대회를 지난 1일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시내 선린동 소재 중국학교 교정에서 기념대회를 끝마친 후 화교들은 다채로운 차림으로 인천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가장 시가행렬을 거행하였다. (1954년 3월 17일자)

### 시 구내식당 개설

인천시청 내에 구내식당이 지난 15일부터 개설되었다. 박봉에 허덕이는 시청 공무원들의 주식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직원들의 외식을 금지하는 한편 사무적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오래전부터 후생식당 개설 계획이 추진되어 오던 바 금번에 개설을 보게 된 것이다. 장소는 시청 동쪽에 있는 별관을 새로이 단장하여 식당으로 사용케 된 것이며 급식 대상자는 시 직원 및 동직원 등이며 제공 식사는 백반 정식 및 화양(和洋)식으로 1식에 일금 50환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1954년 3월 17일자)

### 표창받은 효자와 열녀

김정렬 인천시장으로부터 박창옥 씨 외 5명의 효자, 열녀에 대한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효성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 효자 박창옥 (46세, 인천시 주안동14)

앞을 못 보는 금년 73세의 노부를 모시고 변소 출입의 동반은 물론 주야로 부친의 친구분들을 초대하여 좌담 및 오락을 베풀어서 항상 노부의 위로를 도모하고 내빈의 접대를 소홀히 하는 기색이 없고 노부에 대하여 효성이 지극하다는 평판이 자자하다.

### 인천여중 입학고사 문제 게재

1956년에 치러진 시내 인천중학교와 인천여자중학교 입학고사 문제가 ‘인천공보’에 게재되었다. 당시 이 두 학교는 인천 최고 명문 중학교였다. 지역의 국민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기도 했다. 1970년 중학교 입시 제도가 철폐되면서 이른바 ‘뽕뽕이 추첨’으로 진학을 했으며 이후 두 학교는 폐교되었다. 아래는 ‘인천공보’에 실렸던 인천여중 입학고사 문제의 일부이다.

#### ▲ 다음 운동 경기의 한 편의 사람 수를 ( ) 속에 써 넣어라.

농구( )명, 축구( )명, 배구( )명, 정구( )명, 야구( )명, 탁구( )명

#### ▲ 인천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어느 철도를 타야 하는가? (영등포 경유 가까운 길을 택함) 경인선-( )-( )-( )

#### ▲ 다음 한자의 음을 써라

公正( ) 多情( ) 平等( ) 正義( ) 文化( ) 發見( ) 兩親( ) 任務( ) 自然( ) 良心( )

#### ▲ 다음 일을 하는 기관의 이름은?

①예산 심의( ) ②법률을 실제로 실시한다( ) ③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④국가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⑤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한다( )

#### ▲ 다음 비타민이 모자라면 걸리는 병은 무엇인가?

에이(A)···( ) 뽀이(B)···( ) 씨(C)···( ) 디(D)···( ) 이(E)···( )

### ▲ 효부 김계안 (42세, 인천시 주안동558)

당년 77세의 노시모를 모시고 남편은 15년 전부터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전무함으로 생활의 곤경을 타개코자 주야를 불문하고 품팔이를 하고 있다. 또한 망령된 노시모의 봉양은 물론 남편의 간호를 게을리 하는 사례가 없이 본인 단신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가정 불평이 없이 생활 유지에 꾸준히 전력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일 뿐더러 효부로서 칭찬을 받고 있다. (1955년 3월 28일자)

### 서울~인천 자전거 왕복 우승 김호순

3월 1일 개최된 평화신문사 주최 대한자전거 연맹 주관 3.1절 경축제 3회 서울~인천간 왕복자전거경기에서 인천시청 근무 김호순 선수가 2시간18분25초로 당당 1위를 하였으며 2, 3위도 모두 인천팀이 차지하였다. (1956년 3월 7일자)



1952년 헬싱키올림픽과 1956년 멜버른올림픽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김호순 선수.



### 여성의 광장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에서는 2015년도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학, IT 등 배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남성 포함)  
**수강기간** 4월 6일(월)~6월 20일(토)  
**우선모집**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하여 방문 선착순  
 • 접수기간 : 3월 9일(월)~13(금)  
**일반모집** 당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wp.incheon.go.kr)  
 • IT, 어학 : 3월 18일(수)~마감 시까지  
 • 그 외 과목 : 3월 19일(목)~마감 시까지  
**문의** 815-7101~3  
 ※ 2기부터는 대기자 접수를 받지 않음

###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자식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좌 신청**  
 • 도서관 회원 : 2월 17~24일, 정원 70% 추천  
 • 비회원 : 3월 7일(토) 오전 9시~14시, 정원의 30% 선착순 모집  
 • 홈페이지: www.michuhollib.go.kr  
 • 문의 : 440-6662

###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공원나들이'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역 전문가협의회의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공원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진 촬영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기간** : 4월~12월  
 -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  
 \* 추진기간 내 사진작가 가능 일정으로 추진

**장소** 우리 시 관내 공원  
**내용** 계절별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인천 공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전문 사진작가와 일반시민이 출사하여 사진촬영 기법 강습

**전문가**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원  
**\*협회 소속 사진작가 무보수 재능기부(회당 1명 이상)**

**참가대상** 일반 시민(학생 제외)  
**운영방법** 무료 강습. 연 4기 모집(계절별), 1기당 10~15명, 기별 2~3회 운영, 1회당 2시간 내외 강습

**문의** : 440-3674

### 연수문화원, 명사 초청특강

연수문화원은 봄을 맞아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경제 '경제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일시** 4월 23일(목) 14:00~16:00  
**장소** 연수문화원  
**강사** 경제학 박사 하석용(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흥익경제연구소장, 유네스코 인천광역시 협회장)  
**대상**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료** 무료  
**접수** 인터넷(callyeonsu.go.kr) 및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821-6229

### 맞춤 문화강좌

율목도서관은 '2015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및 상시 행사를 시작합니다.

**2015년 1기 문화프로그램**  
 • 운영강좌 : '한땀두땀 이야기바느질' 등 6강좌  
 • 운영기간 : 3월 31일(화)~6월 14일(일)  
 •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소극장, 별관 어린이자료실  
 • 모집기간 : 3월 27일(금)까지  
 • 모집대상 : 유아, 어린이, 성인 누구나  
 • 참여방법 : 전화 770-3800 및 방문 접수  
 • 참가비 : 무료(교재비/재료비 별도)

### 2015년 팜스테이 '나 또한 의원이요?'

• 운영기간 : 4월 11일(토)~10월 24일(토), 월 2,4주 토요일 10시~11시  
 • 장소 : 율목도서관 별관 및 화원  
 • 모집기간 : 3월 21일(토)~선착순 접수  
 • 모집대상 : 초등 4~5학년 15명  
 • 참여방법 : 전화 770-3800 및 방문 접수  
 • 참가비 : 무료  
 • 주요내용  
 - 약용식물의 맛과 효능, 특성에 대한 학습  
 - 유기농 먹을거리를 직접 키워 맛볼 수 있게 하는 체험장 마련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약초를 통한 재미와 건강 챙기기  
 • 문의 : 770-3805

### 제2기 사회교육 강좌 개강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은 2015년도 2기 사회교육 강좌를 개강합니다. 배움의 열정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 전문·실용생활 과정 : 3월 13일(금) 09:00~정원 마감 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 건강문화아카데미 과정 : 3월 16일(월) 09:00~정원 마감 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실버과정 : 3월 19일(목)~정원 마감 시까지 본인 방문접수

**교육기간** 4월 4일(토)~6월 19일(금) 3개월 과정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남성 접수 가능)  
**문의** 425-1372, 440-6540

과정	강좌명
전문기능양성자	양장, 도배, 미용, 피부미용, 양식, 제과·제빵, 한식(주/야), IT엑셀&PPT(주), 기초에서실무까지엑셀&PPT(야), 컴퓨터초급, 인터넷 활용및한글실전문서, 컴활자격증취득반(야), GTQ포토샵, 블로그 랑 친해지기
실용생활	생활의상디자인(초/중), 의류수선&리폼, 자수&규방, 전통/현대한복, 김치&전통발반찬, 웰빙방상간강채식&약선요리, 페백·떡·한과, 도시락&샌드위치, 보글보글찌개와엄마손반찬, 홈베이커리&디저트, 건강을위한행복한밥상(주말), 직장인을위한요리교실(야), 컷&폼헤어스타일 연출, 홈패션(초/중), POP&폼아트, 논술지도사
건강문화아카데미	클래식&통기타, 우쿨렐레, 생활도예, 손뜨개, 연필인물화(초/중), DSLR로 즐기는사진교실, 민요&장구, 서예&사군자, 한국무용, 영어ABC, 초급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실전영어회화(야), 니하오부터시작하는중국어회화, 재미있는일본어회화, 웰빙요가, 건강(명상)요가, 필라테스요가(야),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방송&다이어트댄스, 재즈댄스(야)
실버과정	우리글배우기(한글초급)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채무조정상담, 대출상담,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

인천광역시는 저신용자, 저소득 계층 등 서민들의 금융수요 증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종합민원실과 생활경제과에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금융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440-4228~29로 문의.

[ 참여기관별 지원내용 ]

참여기관명	주요 지원 내용	요일별	장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제도 안내, 불법 사금융 신고 안내	월~금	본관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지원(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월~금	종합 민원실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자본 창업·운영자금 대출 상담 및 접수	월~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상담, 채무 상담 및 조정 지원	수	본관3층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상담	목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10시~17시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안내서 배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은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평상 시와 다를 때는 부모 안내서를 통해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에게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주세요

-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 거드랑이,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
-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신체에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 경우
- 시기가 다른 다발성의 멍이 있는 경우
- 회음부·엉덩이에 화상이 있거나, 팔다리에 스타킹이나 장갑 모양의 화상 등이 있는 경우
-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아동이 다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하여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 자녀가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인을 두려워하는 경우
- 갑자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경우

문의 434-6436

### 중복해서 받아보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인천을 받아보시는 독자 중 사무실과 가정에서 각각 받거나 같은 주소로 중복돼 받는 분, 사망한 분의 이름으로 계속 배송되는 경우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굿모닝인천의 발간부수가 줄어 중복 배부되고 있는 주소를 정리, 효율적으로 배부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책 한 권이라도 더 필요한 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인천시청 대변인실 홍보콘텐츠팀 440-8302~6



### 영종·청라 신축도서관 이름 지어주세요

미추홀도서관은 내가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신축한 새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공공도서관으로서 상징성을 살리고 주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제한 없음

응모기간 3월 22일까지

응모내용 신축도서관 명칭제안 신청서 참조  
※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반드시 기재

응모방법 신축도서관 명칭제안 신청서를 다운받아 온·오프라인 제출

• 온 라 인 : agadayong@korea.kr

• 오프라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접수 : 440-8870

※ 1인(단체) 3개 도서관 1개씩 응모 제한

결과발표 4월 10일(금) 10시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문의 462-3901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서 끼를 펼쳐라

서구문화회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기획공연 감상과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연극놀이 교육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꿈과 끼를 갖춘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예술감상교육 '책 읽는 무대 속, 두 번째 이야기'

• 교육일정 : 3월~12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모집대상 : 초·중·고생

• 모집인원 : 기수별 35명

• 운영장소 : 서구문화회관 강의를실

• 참가비 : 무료

• 문의 : 580-1155

#### 무용예술교육 '춤이 좋은 날'

• 교육일정 : 3월 ~ 12월, 매주 토요일 오후2시 ~ 5시

• 모집대상 : 초등생

• 모집인원 : 기수별 20명

• 운영장소 : 서구문화회관 강의를실

• 참가비 : 무료

• 문의 : 580-1155

※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컴팩 마수 예술극장 운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영화 등 문화공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내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관람

영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제목 라이온 킹

일시 3월 25일(수) 19:00~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관람료 무료

신청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문의 850-6016



###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행사

인천광역시는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행사를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4월 5일) 10:00~12:00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3-1(늘솔길공원내)

참석인원 1천여 명(시민, 학생 및 공무원 등)

식재면적 5천㎡

식재수종 산딸나무 외 2종 3천주

문의 440-3677

### 금연이 가까워지면, 건강도 가까워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 등록한 금연치료자에 대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문의 870-4114, 010-5322-8224

### '일자리를 잡(job)아라!'

#### 경력 단절 여성 취업상담·알선, 집단상담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알선 및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대상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기간 취업상담 : 연중, 집단상담 교육 : 월 2회, 주 5일(09:30~13:30)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내용

교육일차	교육 주제	교육 내용
1일차	나를 찾아서	나의 마음 이해하기, 직장생활 시작하기
2일차	자신탐색	나의 스타일 발견하기, 직업선택도 조사
3일차	자신감 향상	성격유형 검사,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4일차	직업세계 이해	직업정보 탐색, 이미지 메이킹
5일차	진로·생애 설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진로 설계, 동기부여

방문접수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인천여성복지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접수 취업상담 : 440-6526~6529,

교육상담 : 440-6527, 6546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총회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인천대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는 이병욱 행정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사 30여 명을 회원으로 출범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사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4~5차례 발기인 모임을 가져왔다.

초대 임원진으로는, 협회장에 인천대 평생교육원 이병욱 행정관, 부협 회장에 인천광역시 인력개발원 김종권 교육지원과장과 인천직업전문학교 이광호 교수가 추대됐다.

협회는 3월 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으로, 더 많은 평생교육사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이병욱 협회장은 "협회 창립을 계기로 인천지역 평생교육사들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온라인 네이바벤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와 다음카페 '인천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에 많은 평생교육사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40여 년 전, 경인국도

1970년대 부평구 부개동 도로의 모습입니다. 차폭도 좁고 차량과 오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인국도로써 엄청난 교통량을 자랑합니다.

유종하 연수구 앵고개로



추억의 수인선,  
꼬마기차야 달려라

덜컹덜컹 흔들흔들 수인선을 달리던 험궤열차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 소년들은 지금 아빠가 되어 가족과 인천을 든든히 지키고 있지요. 벌써 20년이 지난 옛 추억이지만, 그때 그 꼬마기차는 아직 내 마음속 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명숙 남구 승학로



장원

1976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놀지 않죠? 1976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송도유원지 지나 어느 산 속에서 기마놀이, 팔씨름 등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인주(仁州) 이씨 조상묘 터였다는군요.

박정현 연수구 새말로



그 시절 단골 피서지 ‘송도 해수욕장’

인천에서 함께 자란 사촌 형이 미국에 이민 갔다가 휴가차 한국에 들렀을 때, 송도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엔 휴가철이 되면 너도나도 송도 해수욕장을 찾았지요. 그리운 그때 그 시절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심정민 부평구 마장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두근두근’ 인천의 숨은 매력을 한눈에~



두근두근 인천산책

지은이 이하람(skyharam222@gmail.com)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출간일 2014년 9월 17일

값 1만4천원



인천의 진짜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뉴욕도 부럽지 않은 공원과 쇼핑몰, 아끼지 못한 레스토랑이 즐비한 송도국제도시, 세련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보다 낡은 간판을 내건 식당이 잘 어울리는 동인천과 신포동, 바다가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이만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도 없을 것이다.

‘두근두근 인천산책’은 놓치면 아쉬운 산책 코스를 소개해 주는 ‘동네 한 바퀴 시리즈’의 여섯 번째 도서로, 인천에서 찾은 흥미진진한 산책 코스를 소개한다. 눈과 입이 즐거운 도시 산책 코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코스, 당일치기 바다 여행이 가능한 코스 등 인천 각 지역을 테마별로 나누어 구성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걷기 편한 신발과 이 책만 있으면 인천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다. 낭만을 품은 바다, 오랜 이야기로 꿈틀대는 도시,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미처 몰랐던 인천의 매력이 눈앞에 차오른다.

여행 작가이자 라디오 방송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 중인 저자 이하람은 중구 해안동 작업실에서 이 책을 쓰면서, 몇 개월 동안 오직 ‘산책’을 위해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양한 인천의 풍경과 이야기에 매료됐다고 말한다.

천천히 인천을 산책하며 써 내려간 ‘두근두근 인천산책’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인천의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싱그러운 봄 햇살의 생명처럼 오랜 이야기로 꿈을 거리는 인천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남편은 역사를 찍고, 아내는 새를 그렸다



강화도 세 번째 이야기

지은이 윤용완·최순례

출판사 진원

출간일 2015년 2월 6일

비매품

강화도가 궁금하다면 아마 이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강화군의 문화재와 철새, 텃새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표현한 ‘강화도 세 번째 이야기’는 강화군의 향토 사진작가 윤용완과 생태작가 최순례 부부가 회갑을 기념해 함께 만든 책이다.

300쪽 분량으로 편집된 책은 강화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강화고인돌, 강화의 돈대, 강화의 산과 섬 등을 다양한 촬영기법으로 새롭게 표현했다. 특히, 강화의 54돈대 중 현존하는 35개소 전체를 새로운 각도로 촬영해 신비스러움을 더했다.

이 책에서 최순례 생태작가는 강화 탐조를 통해 천연기념물 19종과 여름철새·겨울철새·텃새·나그네새 180종의 번식, 먹이활동 등 쉽게 볼 수 없는 새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잡아냈다.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윤용완 작가는 그동안 강화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강화도 100가지 이야기’ ‘강화는 보물섬’ 등 사진집을 발간했으며, 각종 향토지 집필에 기여해 왔다.

※ 이 코너는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천 관련 책을 출간하셨다면 이 지면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구운 굴 맛

글 이성재 수필가 인천문인협회



내가 사는 곳에는 지금도 오일장이 선다. 장이 서는 날은 숫자 끝자리가 2와 7이다. 이날이 되면 지금도 장터와 그 주변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과 구경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다. 나 역시 장이 서면 특별히 살 게 없어도 가끔 장 구경하러 가곤 한다.

어느 해 겨울 그날도 나는 장엘 갔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저녁에 먹을 찌개거리를 사고 장을 한 바퀴 빙 돌았다. 상인들은 추위를 잊고자 난로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난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로가 아닌 드럼통에 구멍을 송송 내어서 만든 드럼통 난로였다. 그런데 그 드럼통 난로 위에는 하나같이 굴들이 올려져서 있었다. 전에도 몇 번 보았던 광경인데 그날 또 본 것이다. 어떤 상인은 올망졸망한 굴을 가끔 뒤집기도 했다. 나는 굴을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곳은 미처 뒤집지 못해 굴껍질이 조금 타기도 했다. 나는 시장을 돌면서 왜 굴을 구울까? 토마토는 굵거나 살짝 익혀서 먹는다는 건 알지만 굴을 구워서 먹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슨 맛일까? 굴을 구워서 먹으면...

필요한 것들을 대충 사고 마지막으로 된장 파는 가게로 가던 중 구운 굴을 까서 드시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굴이 뜨거운지 공놀이하듯 양손에 몇 번 번갈아 잡더니 까서 드셨다. 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주머니가 웃으며 “뭘 줄까?” 하시며 진열되어 있는 야채들을 뒤적였다. 나는 웃으며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다.

“아줌마, 정말 궁금해서 여쭙어 보는 건데요. 도대체 그 굴 왜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굴을 구워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나요?”

이 질문을 해 놓고 나는 잔뜩 기대를 했다. 과연 어떤 맛이라고 대답하실지. 굴을 구우면 뽀들뽀들해지나? 아니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 바삭해져서 고소할까? 아니면 쫄쫄해져서 그 단맛이 강하려나? 분명 어떤 다른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굴을 난로 위에 올려놓은 거겠지? 분명 보통 굴 맛이 아닌 다른 어떤 맛이 있을 거야. 그 맛이 궁금해 뻘히 쳐다보는 나를 보더니 아

주머니는 조금 전 먹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던 굴을 다시 꺼내 한 쪽 먹으며 말씀하셨다.

“아무 맛도 안 나. 추워서 그냥 먹으면 이가 시리잖여. 차가워서 그냥은 못 먹어.”

내가 기대했던 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날따라 난 그 구운 굴 맛이 정말 궁금했다. 구우면 굴이 더 달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 고구마도 삶은 것보다는 불에 구운 것이 더 단 것처럼 굴도 그럴 것이라 여겼다.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 오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그러면서도 아주머니의 말이 참으로 이해가 갔다. 내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생전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은 걸 드리면 이가 시려서 싫다고 하셨다. 더군다나 한데서 겨울바람을 잔뜩 맞은 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드시기에는 너무 차갑고 이가 시렸을 것이다. 그래서 굴을 굽는 것이 아니라 데우려고 드럼통 난로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굴을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게 더 맛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굴을 구워서, 아니 데워서 먹어야 할 정도로 차가운 것이 달으면 이가 시리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씨 발레스 발레오(Si vales valeo)”

나는 이 말을 ‘시발레스 발레오’라고 발음하기 편한 대로 말한다. 이 단어는 “그대가 잘 있으면 나도 잘 있다”는 뜻의 라틴어다. 로마 사람들이 편지 끝이나 첫머리에 쓴다는 이 인사말을 나는 참 좋아한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시발레스 발레오!’



## “거북선 주세요”

‘담배 가게 돌아서 두 번째 집.’

담배 가게는 동네의 좌표(座標)이자 골목의 등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켜졌고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지폐를 들이미는 손등만 보고도

아리랑, 거북선, 88, 술이 알아서 나왔습니다.

동네 애연가들의 기호(嗜好)를 다 꿰차고 있었습니다.

담배 가게 하나로 자식들 대학 공부 다 시켰다는 것,

이제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 부평구 산곡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